

견관절 석회화 건염의 관절경적 치료

이용걸, 김영환, 박무송
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

이 논문의 목적은 견관절 석회화건염 환자에 대해 관절경적 치료후 최종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알아보고자 함에 있다. 1993년 9월부터 2000년 3월까지 본 교실에 내원한 석회화 건염 환자는 총 106례였으며 극상건에 66%, 극하건에 17%, 견갑하건에 17%를 보이고 있었다. 이 중 증상의 호전이 없어 관절경적 제거술을 시행받은 34명의 환자에서 2년 이상 추시 관찰이 가능하였던 20명 21례의 견관절을 대상으로 하였다. 남자가 3례, 여자가 17례였으며 평균나이는 59세(39-81)로 우세수에 침범된 례가 15례를 차지하였다. 크기가 1cm미만인 경우가 11례(52%)였으며 극상건 침범이 14례(67%), 극하건이 5례(24%), 견갑하건이 2례(9%)였다. 결과는 술전 증세가 심할수록 더 효과적 이었으며, 술후 3개월부터는 통증 및 기능회복의 완만한 호전을 보였다. 크기가 1cm미만(11례)에서는 술전 동통 및 UCLA점수가 술후 각각 7.7에서 0.7로, 13.8에서 32.8로 호전되었으며 1cm이상(10례)에서는 각각 7.6에서 1.1로, 14.0에서 31.3으로 호전되었으나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다($P=0.386$). 부위별로 보면 극상건인 경우 술전 동통 및 UCLA점수가 각각 술후 7.9에서 0.4로, 12.7에서 33.0으로 호전되었고, 극하건인 경우 각각 7.6에서 1.0으로, 14.8에서 33.4로 호전되었으나 견갑하건인 경우는 각각 6.5에서 4.0으로, 20.0에서 22.5로 만족스럽지 못 하였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($P=0.001$). 완전제거가 가능하였던 15례의 환자는 동통이 술전 8.0에서 술후 0.4로, UCLA점수는 술전 13.8에서 술후 32.8로 호전되었으며, 불완전 제거가 된 6례에서는 동통이 7.4에서 1.4로, UCLA점수가 14.0에서 31.5로 호전되었다($P=0.444$).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을 4례에서 시행하여 하지 않은 예와 비교 하였으나 의미있는 결과의 차이는 없었다($P=0.618$). 최종점수는 최우수가 5례(23.8%), 우수가 14례(66.7%), 양호가 1례(4.8%), 불량인 1례(4.8%)로 나타났으며 수술 결과의 만족한 환자는 21례중 17례로 81%를 차지하였다.

결론적으로 견관절 석회화 건염의 관절경적 치료는 동통 완화 및 기능 회복에 좋은 결과를 보여 권장할만한 수술이라 생각된다. 석회화 크기, 완전제거유무, 견봉성형술 시행등은 수술 결과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, 술전 동통의 정도나 부위는 상당히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.